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1월 4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4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. 3(화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진흥과
담당과장	허정수 과장(044-203-5390)	담 당 자	신유철 사무관(044-203-5391) 김인곤 사무관(044-203-5394)

민간 투자 증가로 금년 에너지신산업 총 14조원 투자 전망

- 금융 · 기업 · 공공부문 「에너지신산업 금융 · 투자 간담회」 개최 계기 -

- **클린에너지 · 스마트공장(건물) 2천개소 구축(5천억원)**
- **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 제거를 위해 "투자애로 전담반" 구성 · 운영**
- **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전용 대출 · 렌탈상품 출시**

1. 개최 배경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**는 올해 **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한해**로 만들고자, **금융기관, 수요 · 공급 기업, 공공부문이 한 자리에 모인 「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 간담회」**를 가졌다.

< 간담회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** : '17.1.4(수) 11:00~13:00, 양재 엘타워 매리골드홀(5F)
○ **참석자** : 장관, 10개 금융기관장, 10개 기업대표, 4개 지원기관장 등 30여명
○ **주요내용** : ① 금융·제조사의 투자계획, ② 제품·설비 신뢰성 제고방안, ③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·비즈니스 계획 발표 등

○ 간담회는 **지난해 7월 「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」, 11월 「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」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의 일환**으로 열렸다.

< 대 책 >

【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(7.5)】
· RPS 의무비율(%) 상향조정
* '18년 4.5→5.0, '19년 5→6, '20년 6→7

【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(11.30)】
· 장기 고정가격(SMP+REC) 계약제도 도입
· 주민참여 활성화 · 입지/환경규제 완화
· 주택/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
· 계통접속 애로해소

→

< 후속 조치 >

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(12.14)
②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(12.14)
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점검(12.16)
④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(12.19)
⑤ 에공단-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(12.23)
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(12.27)
⑦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 간담회(1.4)

○ 간담회에서는 **우리은행·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금융상품 출시계획, 엘지(LG)전자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뉴비즈니스 모델 발표**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올해 **준비중인 투자계획과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.**

□ 한편, 이 날 간담회에 앞서 **한전과 엘지(LG) 유플러스는 향후 10년간 「클린에너지·스마트공장(건물)」 2천 개소 구축을 목표로 5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(MOU)를 맺었다.**

2. 간담회 주요 내용

가. 2017년 에너지신산업에 총 14조 원 투자 (전년대비 25% 증가)

□ 올해도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관의 금융 · 투자 총액은 **지난해 대비 25% 증가한 14조 원을**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,

○ 이는 **펀드,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등 금융투자 증가**와 **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** 등 **민간 투자의 증가***에 기인한다.

* 금융, 기업 등 민간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66% 증가

< 주체별 세부 투자계획(안) >

단위: 조원

연도	정부	공공기관	금융	기업	합계
2016	1.2	5.4	2.7	1.7	**11.0**
2017	1.4	5.1	4.1	3.2	**13.8**

나. 민관이 힘을 합쳐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 제거

□ 참석자들은 "**정부의 지속적 제도개선**과 **인센티브 강화**로 **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**하고,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**시중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하기 시작**했다."라고 평가하면서,

○ **일부 존재하는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은 민관이 힘을 합쳐 제거**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.

< ① (정부) 공공부문 선도 수요창출 및 범부처 합동 잔존규제 철폐 >

□ 지난해 **제도개선과 집중지원**을 통해 마련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**투자 활성화와 시장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**하기로 했다.

○ 특히, **잔여 규제는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실시**하여 **에너지신산업 보급·확산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**할 것이며,

○ **투자애로 전담반**과 **지자체 협력채널을 구축**해 한번에(**원스톱**) **서비스를 제공**하고, **미해결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**해 일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**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**해 **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며 성장기반을 공고화**해 **수출 산업화**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.

< ② (기업) 시장확대를 위해 제조기업의 제품·설비 신뢰성 제고 >

□ **에너지신산업 제조기업들**은 정부의 집중 지원과 규제 개선에 따른 **수요 확산 움직임에 대응**하여 고객확보를 위한 **제품·설비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**하기로 했다.

< 주요 분야별 제품·서비스 신뢰성 강화계획(안) >

배터리 (A, B 사)	• ESS 성능보증 강화(10→12년) 및 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(2→3년) • 주기적 정기점검 실시, 성능 미달시 동등 이상으로 교체 (신설)
전력변환장치 (C, D 사)	• 성능보증 강화(효율 85%, 10년 → 효율 87%, 15년) 및 하자보증·서비스 점검 무상기간 확대(1→3년) • 성능보증 강화(10→15년) 및 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(2→3년)
태양광 (E 사)	•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에 대해 12년간 제품보증(일반제품 : 10년) 및 25년간 83.6% 출력보증(일반제품 : 25년 80%)
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[FEMS] (F 사)	• 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(2~3년 → 3~4년) 및 서비스 보증 신설(3~4년)

< ③ (공공+금융) 에너지신산업 자산화를 위해 잔존가치 기준 마련 >

□ 업력이 짧아 잔존가치 파악이 어려운 **신산업 제품에 대한 금융 활성화**를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'**신산업 제품들의 연차별 자산(담보) 가치평가 기준(안)**'을 **에너지공단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**하기로 했고,

○ 이를 통해 **신산업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금융 활성화**는 물론, **중고 제품 거래시장도 활성화**할 것으로 기대했다.

다.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·비즈니스도 본격화

< ① 금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전용상품(대출·렌탈) 출시 >

□ 주요 금융기관은 **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연계**를 통한 **에너지신산업 전용 금융상품(에너지저장장치(ESS) 대출·렌탈) 출시계획**을 발표했다.

○ (제1금융권) **신한은행**은 **신용보증기금 보증을 기반**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**에너지저장장치(ESS) 수요자 및 공급자 대상 에너지저장장치 협약대출을** 출시한다.

< 현행 대출상품과의 비교 >

구분	현행 대출상품	에너지저장장치(ESS) 전용 대출상품
보증비율	대출금액의 85%	**대출금액의 90%**
보증료	0.2%p 차감	0.2%p 차감 + **추가0.2%p**
금리우대	-	**산출금리기준 최대 1.0%p**

○ (제2금융권) **삼성카드**는 **보증기관**과 함께 **에너지저장장치(ESS)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**할 수 있는 대여(**렌탈**) **상품을 1분기 중 출시 계획이다.**

○ **에너지저장장치(ESS) 수요자**는 **초기비용 및 대출 부담 없이** 이용료 납부만을 통해 **에너지저장장치(ESS)** 설치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아울러, 금융기관에서는 올해 **전년대비 52% 증가**한 **4조원대 금융·투자 묶음(패키지)을 출시**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**펀드**와 **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.**

< 금융상품별 지원 계획(안) >

구분	2016년	2017년
대출	약 1조 8백억 원	약 6천 3백억 원
펀드	약 1천억 원	약 1조 4천억 원
PF	약 7천 8백억 원	약 1조 8천억 원
투자	약 7천 1천억 원	약 2천 9백억 원
합계	**2조 7천억 원**	**4조 1천억 원**

< ② 「클린에너지·스마트공장(건물)」 2천개소 구축 >

□ 한편, 1부 행사에서 **한전과 엘지 유플러스(LG U+)**는 「**클린에너지·스마트공장(건물) 확산 양해각서(MOU)**」를 **체결**하고, **향후 10년간 5천억 원을 투자**해 **클린에너지·스마트공장(건물) 2천개소를 구축**하겠다고 밝혔다.

○ 공장(건물)에 태양광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, 고효율기기 등을 **패키지로 구축**하여 **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 제고(에너지 최대 20% 절감)**하고,

○ 시공사가 **수요처에 무상 구축**하고 **에너지 절감액의 일부로 구축비용을 회수**하므로 **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구축이 가능하다.**

* 한전은 타 사업자와도 에너지신산업 투자협력을 확대할 계획

< ③ 「클린에너지·스마트홈」 2천세대 시범 구축 >

□ **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엘지(LG)전자는 가정**(공동주택)**에 에너지 저장장치(ESS)와 에너지 사물인터넷(IoT)을 설치해 에너지를 대폭 절감**하는 클린에너지·스마트홈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.

○ 올해 **2천 세대 실증사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** 공동주택 등으로 **단계적 확대 예정이다.**

○ **❶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**으로 **에너지 절감**, **❷무선 에너지 컨트롤**, **❸**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활용한 **전기요금 절감** 등을 기대하며,

○ 그동안 **공장 및 상업 시설에 주로 설치되던 에너지신산업 설비가 가정까지 확산되는 시발점**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3. 향후계획

□ **주형환 산업부장관**은 **14조 원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**할 계획이며,

○ 특히, 생산성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**클린에너지·스마트공장(건물)의 확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**고 강조했다.

□ 주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"**집사광익(集思廣益)***"이라는 말처럼 금융과 기업,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,

*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(**集思**)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(**廣益**)는 의미

○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'**수출산업화의 길**'**에 역량을 결집**하자고 주문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신유철 사무관(☎ 044-203-5391), 김인곤 사무관(☎ 044-203-53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행사 개요

□ **일시/장소 : 1월 4일 11:00~13:00**, 양재 엘타워 매리골드 홀(5층)

□ **참석대상** (30명 내외)

○ 산업부(4) : 장관, 에너지자원실장, 에너지자원정책관, 신산업단장

○ 금 융(10) : 신한, KEB하나, 산업, 기업, 우리, 농협상호금융, 삼성카드, 은행연합회, 신용보증, 기술보증

○ 기 업(10) : 삼성SDI, LG화학, LS산전, 한화큐셀, LG전자, 효성, LG U+, KT, 포스코에너지, SK E&S

○ 공 공(4) : 한국전력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에너지공단, 산업단지공단

□ **행사내용**

○ (1부 행사) **한전 - LG U+ 간**
『클린에너지·스마트공장(건물) 확산 MOU 체결식』

○ (2부 행사)『**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 간담회**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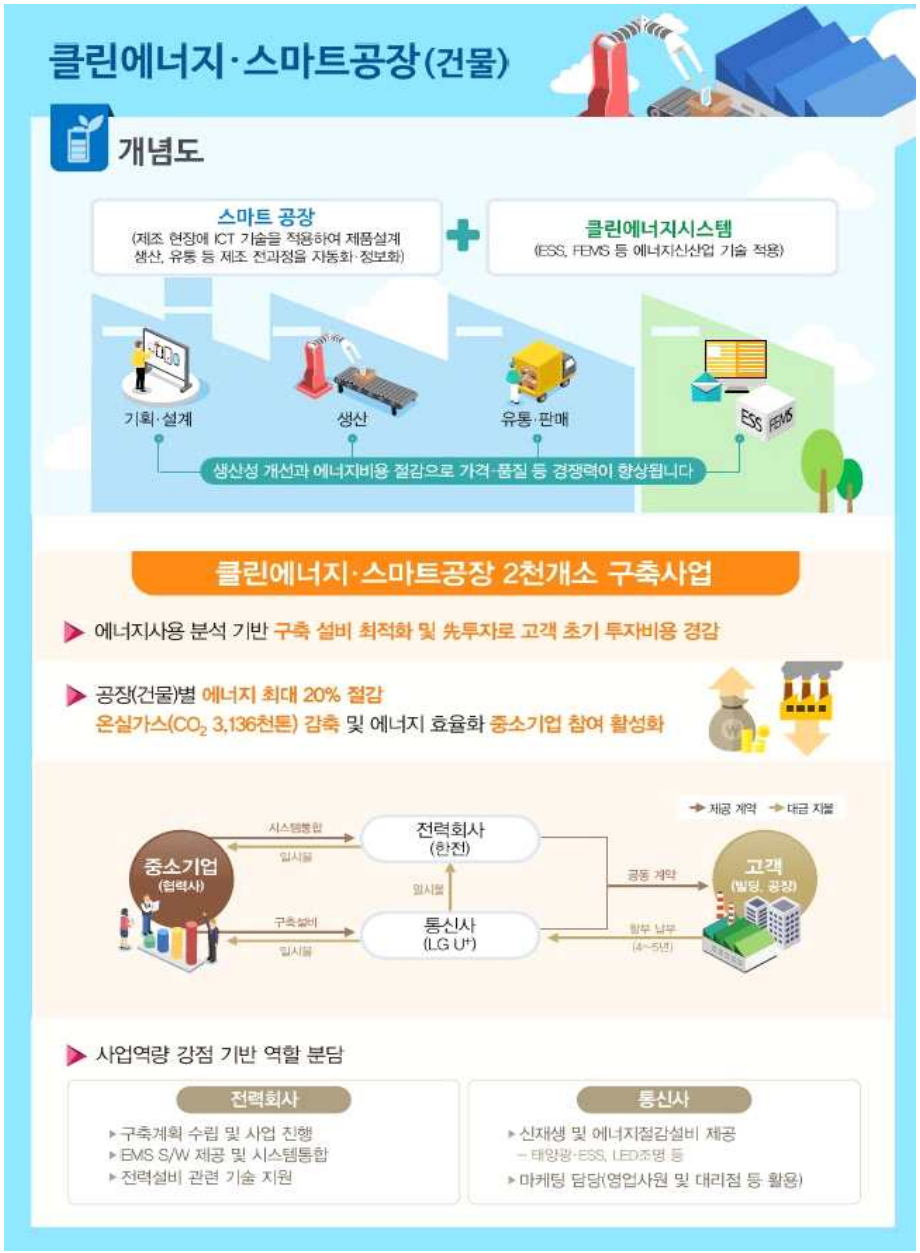
□ **세부일정**

시 간		행 사 내 용	비 고
① 클린에너지·스마트 공장(건물) 확산 MOU 체결식 (매리골드 1호)			
11:00~11:05	5′	▪ 상견례 및 Tea Time	접견실
11:05~11:13	8′	▪ 개회 및 협력방안 보고	한전
11:13~11:20	7′	▪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촬영	**장관**
11:20~11:21	1′	▪ 본 행사장으로 이동	
②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 간담회 (매리골드 2호)			
11:30~11:38	8′	▪ 인사말씀	**장관**
11:38~11:50	12′	▪ 안건 발표	
		① 에너지신산업 주요성과 및 '17년도 추진계획	신산업단장
		② 에너지신산업 금융활성화 방안	은행
		③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신비즈니스 모델	기업
11:50~12:55	65′	▪ 오찬 및 자유토론	전체
12:55~13:00	5′	▪ 맺음말	**장관**

붙임 2 참석자 명단

구 분	소 속	성 명		비고
정 부 (4)	산업통상자원부	주 영 환	장 관	
	산업통상자원부	김 학 도	실 장	
	산업통상자원부	장 영 진	국 장	
	산업통상자원부	주 영 준	국 장	
금융 기관 (10)	신한은행	조 용 병	은행장	
	KEB하나은행	함 영 주	은행장	
	IBK기업은행	김 도 진	은행장	
	농협상호금융	이 대 훈	대표이사	
	삼성카드	원 기 찬	사 장	
	은행연합회	하 영 구	회 장	
	신용보증기금	황 록	이사장	
	기술보증기금	김 한 철	이사장	
	KDB산업은행	이 대 현	수석부행장	
	우리은행	김 홍 구	부행장	
업 계 (10)	삼성SDI	조 남 성	대표이사	배터리
	LG화학	이 웅 범	사장	배터리
	LS산전	구 자 균	대표이사	전력변환장치
	효성	문 섭 철	사장	전력변환장치
	한화큐셀	남 성 우	대표이사	신재생(태양광)
	LG전자	이 상 봉	사장	에너지IoT, 스마트홈
	LG U+	권 영 수	대표이사	에너지IoT, 스마트공장
	포스코에너지	윤 동 준	대표이사	발전
	SK E&S	유 정 준	대표이사	민간발전
	KT	윤 경 림	부사장	에너지IoT
지원 기관 (4)	한국전력공사	조 환 익	사 장	
	한국토지주택공사	박 상 우	사 장	
	한국에너지공단	강 남 훈	이사장	
	한국산업단지공단	황 규 연	이사장	

붙임 3 클린에너지 · 스마트공장(건물) 개념도



붙임 4 클린에너지 · 스마트홈 개념도



붙임 5 에너지신산업 금융 신상품

에너지신산업 금융 신상품 출시

제 1, 2 금융권 모두 **에너지신산업 금융신상품 출시**

ESS 협약보증대출

역할분담

은행	협약보증서 발급기업 대상 보증료지원 및 우대 대출 지원
보증기관	에너지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보증서 발급
지원기관	ESS 확산사업요건 충족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을 금융기관에 추천



기대효과

- 대출혜택 확대
  - (은행) 금리우대(최대 1.0%p), 보증료 0.2%p 지원
  - (보증기관) 보증비율 90%로 확대 적용, 보증료 0.2%p 차감

현행 대출상품과의 비교

구분	현행 대출상품	ESS 전용 대출상품
보증비율	85%	90%
보증료	0.2%p 차감	0.2%p 차감 + 추가0.2%p
금리우대	-	신출금리기준 최대 1.0%p

ESS 렌탈상품

역할분담

카드사	자금 대출 및 신용보강 필요시 자료 작성
보증기관	렌탈채권 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
제조기업	ESS 배터리 효율 보장 및 설치 인증서 발급



기대효과

- ESS 수요자는 초기비용 및 부채부담없이 이용료 납부를 통해 ESS를 설치 가능
- ESS 수요자 및 공급자의 자본 확보를 통한 수요 증대 및 투자 활성화 기대

붙임 6 에너지신산업 제품 · 설비 신뢰성 제고

에너지신산업 제품·설비 신뢰성 제고

정부의 집중지원과 규제개선으로 인한 **수요확산 움직임에 대응**하여
에너지신산업 **공급기업**도 **제품·설비 신뢰도 제고방안** 마련·발표

	현황	개선
배터리	▸성능보증 10년, 하자보증 2년	▸성능보증 12년, 하자보증 3년 ▸주기적 정기점검 실시, 성능 미달시 동등 이상으로 교체
전력 변환장치	▸효율 85% 10년 보증 ▸하자보증 1년, 서비스보증 1년 ▸성능보증 10년, 하자보증 2년	▸효율 87% 15년 보증 ▸하자보증 3년, 서비스보증 3년 ▸성능보증 15년, 하자보증 3년
태양광	▸태양광 출력 25년 80% 보장 ▸하자보증 태양광 10년, PCS 3년 ▸서비스보증 태양광 10년, PCS 3년	▸태양광 출력 25년 83.6% 보장 ▸하자보증 태양광 12년, PCS 3년 ▸서비스보증 태양광 12년, PCS 3년
FEMS	▸하자보증 2~3년, 서비스보증 無	▸하자보증 3~4년 ▸서비스보증 3~4년(신설)

기대효과

에너지신산업 **제품·설비의 신뢰성 보증**을 통해
금융지원 활성화 기반을 **조성**하여
에너지신산업 확산

